

## '폭염에도 포기는 없다' ... 국토대장정 전원 완주

기록적인 폭염에도 260km 국토 종주

전주대 학생들이 '동해를 너에게'라는 구호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동해안길 260km 구간의 국토대장정을 완주했다.

전주대 재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47명의 대원들은 지난 18일 포항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포항-대구-영덕-울진-삼척까지 이어지는 동해안길 약 260km 대장정을 진행했다.

전주대는 학생들이 스스로 국한을 체험하면서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국토를 직접 걸어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토대장정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원들은 체감온도 40~42도를 육박하는 장기화된 폭염 속에도 매일 30km씩 걸으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다. 특히, 새로운 환경과 많은 활동량으로 인해 물집·빈혈·근육통·구토감 등이 그들을 괴롭혔지만 서로의 의지하며 한 명의 나오자 없이 모두가 무사히 완주했다.

28일에는 이호인 총장도 깜짝 방문하여 대원들과 함께 걸으며 그들을 격려했다.

이호인 총장은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며, "이번 도전을 기반으로 도전하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대장정이라고 해서 무작정 걷지만은 않았다. 동해의 아름다운 명소를 험터로 선정하여 대원들



전주대 학생들이 '동해를 너에게'라는 구호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동해안길 260km 구간의 국토대장정을 완주했다.

간에 주억도 쓰고 다양한 이벤트로 여독을 풀기도 했다. 또, 연이은 폭염특보에 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했다.

총괄대장을 맡은 경찰학과 3학년 이성국 학생은 "모두가 처음 도전하는 국토대장정이지만 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모두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기록적인 폭염으

로 힘들었지만 인생에 큰 이정표를 새길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전주대는 지난 2010년 진행된 국토대장정을 시작으로 지난 2010년 8회 동안 국토대장정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누적 거리 2,080km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를 6번 종단할 수 있는 거리다.

/김재훈기자



### 하절기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 위한 '쿨맵시 캠페인' 전개

장수군은 27일 여름철 저탄소생활실천을 위해 군청 공무원 및 장수군 그리너 네트워크 회원들 약30명과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쿨맵시 캠페인'을 방화동 가족휴게관에서 실시했다.

'쿨맵시 입기'는 시원하고 편한 웃자립 착용으로 인한 체감온도를 2°C 정도 낮춰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녹색생활실천운동 중 하나이다.

또 여름철 실내온도 26~28°C 유지하기, 친환경운동장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통해 난방비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쿨맵시란 시원하고 멋스러운 의미의 '쿨(Cool)'과 옷 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를 의미하는 합성어로 시원하고 편편면서도 예정과 맵시를 갖춘 옷차림을 말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등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순회 농업인 교육 실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성동을 시작으로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군산생활개선학원 650여명을 대상으로 '하절기 여성농업인 능력비양교육'을 실시한다.

능력비양교육은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소양교육을 통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재배 및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순회교육이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폭염과 가뭄을 대비한 세부 관리요령을 배우며 특히 농작물을 생육 증후기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결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양미영 강사의 '건강한 삶 이야기', 전세환 강사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리더의 역할' 등 열띤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 폭염에 자진 여성농업인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 사랑 나눔 어르신 식사 봉사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회장 유재훈)과 원광종합사회복지관(원장 김도진)은 지난 27일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에서 폭염과 열대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어르신们을 위로하기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랑 나눔 어르신 식사봉사 행사는 익산시, 이리배산라이온스클럽,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의 3자 협약식, 식사봉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라이온스 회원 20여 명이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150인분의 식자재 후원과 함께 직접 조리, 배식까지 담당하며 맛있는 점심을 대접했다.

유재훈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라이온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남원서 중앙지구대, 현금 다액 취급업소 방범순찰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 중앙지구대(지구대장 이동권)는 지난 26일 각종 금융기관과 금은방, 편의점 등 현금 다액취급업소를 찾아 범죄예방교육 및 방범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지구대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절도 및 강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비상벨 작동유무 확인 등 초동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금은방 및 편의점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 주위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해 단시간 내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갖추었다.

이동권 중앙지구대장은 "각종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초동조치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운봉피출소, 모정간담회 큰 호응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 운봉피출소는 지난 27일 운봉읍 매여마을 말허리 쉼터보정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판소리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요령과 교통사고 및 의사 사고 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조류역 파출소장은 매여마을 모정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소리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사랑과 호남가를 들려드리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범죄예방 홍보를 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경찰·청소년보호협의회 모범 청소년 응원

순창경찰서(서장 김대형)와 청소년보호협의회는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모범청소년에게 장학금 및 청소년보호협의회 모범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윤바른 학교문화 정착과 학교생활 선도에 앞장,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동체계 복기원 학생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장학금 수여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밖에도 평소 지역사회 발달에 노력하며 특히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앞장선 청소년보호협의회 최용석 회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순창=이용원기자



### 진안군, 다문화 가족 간 소통·화합 한마당 '성황'

진안군은 지난 28일 이향로 군수, 관내 기관단체장, 다문화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문예체육회관에서 마련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인 다문화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진안읍 마이꼬씨 등 3명의 결혼이민자에게 군수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평소에 맞볼 수 없었던 5개국 다문화 음식과 각국의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된 가족 장기자판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웃음꽃을 선사했다.

이향로 군수는 "다문화가족들의 인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주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